



● 대전 유성에서 열린 독서지도교사 세미나 광경. 전국에서 18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독서 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독서교육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교과과정. 연계가. 필수.

지난 2004년 1월 29일에서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유성호텔에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낙준)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 주최로 독서지도교사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독서대상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독서대상을 수상한 교사 475명을 모두 초청해 독서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교사들의 '총회' 처럼 성황을 이뤘다. 참여한 독서지도교사는 180여 명.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김낙준 위원장은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독서운동을 위해 매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세미나를 열었다"며 "독서운동이 보다 확산되고 충실해져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독서선진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세계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독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독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며 "독서지도교사 세미나가 올바른 청소년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날은 '독서와 뇌활동 그리고 발달'이라는 주제로 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문용린(서울사대 교육학과 교수) 부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제10회 독서대상 수상자인 형지영(광주 문화중학교 교사·대통령상), 이정숙(서울청구초등학교 교사·국무총리상), 김건수(경북 의성중학교 교사·국무총리상) 교사의 독서지도 교육 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도서관 활용 총체적 독서교육 7단계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평생 독서습관 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형지영 교사는 참여교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부러움을 샀다.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인 독서 활동지도'를 발표한 이정숙 교사는 '아이큐 박수'를 유도하는 등 중·고등학생과는 다른 초등

학생 독서지도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고, '다양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를 발표한 김건수 교사는 독서교육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작은 학교에서 겪은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날 토론시간에서는 형지영 교사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독서지도교사 개인이 독서교육 7단계 프로그램을 실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형지영 교사는 "단지 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게 하는 것으로는 독서지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독서지도교사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학부모와 다른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튿날에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이정숙 교사가 분임장으로 나선 초등부는 '교과지도를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정숙 교사는 "독서지도는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교과지도와 관련하여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지도를 통한 독서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독서교육 인식부족과 교과관련 독서지도 자료 및 활용부족, 도서관 활용수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또한 다양하게 제기됐다. 먼저 독서교육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연수 및 선진도서관 견학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독서행사를 통한 교사, 아동,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해 도서관 이용을 확대시키고, 담임이 아이들에게, 관리자가 담당교사에게 상을 줌으로써 독서유도와 담당교사의 사명감 고취가 필요하다는 주



● 독서지도교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왼쪽부터) 김건수 형지영 이장숙 교사.

장도 제기됐다. 독서지도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화·일반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장도서, 행사자료 등 독서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도서관 활용계획 수립 ▲도서관을 수업자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 ▲학급문고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 수업 활성화 ▲교과 단원 속에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단원 재구성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건수 교사가 분임장으로 진행한 중등부는 '다양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사는 "모든 행위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며 "독서를 게을리할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고 문제해결능력도 저조해 결국 낙오자가 된다는 등식을 인식시킨다면 모두가 책을 읽고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임토의에서는 독서환경 조성,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서교육, 도서관 활용수업 운영 방안, 컴퓨터 활용 독서지도 방법 등이 논의됐다.

독서환경과 관련해서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교육부에서 전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5,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일부 학교에서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교사들은 인테리어 공사에 돈을 쓸 게 아니라 학교 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료를 도서관에 집중시키고 문헌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를 통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독서

를 열심히 하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돼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 교과 담당교사는 각 교과에 선정된 도서를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학생이 높은 학업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학습을 전개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활용과 컴퓨터 활용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활용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며 먼저 교육청에서 표준 모델을 개발해 일선학교에 장학자료로 배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전담 사서가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서관 수업의 경우 교과 담당교사가 도서관 활용 수업을 계획하여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자료를 분석해 학습과제를 해결한 후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비치하고 정보기기 이용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사서의 부재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교과단원과 관련된 도서나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한 정보탐색 정도에 그친다고 토론했다.

이번독서지도교사 세미나에서는 ▲독서교육 자료의 일반화와 체계화 ▲사서교사 배치 및 독서지도 교사의 지속적 관심 ▲학부모, 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교과연계 지도와 독서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동기부여 등이 공통된 과제로 논의됐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